

2016. 10. 25.(화) 14:30-

제1회 금융의 날 기념식 (세종문화회관)

축 사

국 무 총 리 황 교 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융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맞이하는 ‘금융의 날’입니다.

지난 1964년부터 기념해온 ‘저축의 날’을
올해부터 ‘금융의 날’로 바꾼 것은
금융의 환경과 역할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저축은
우리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저축에 나섰고,
이렇게 마련된 소중한 자금은
산업화 기적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축의 의미와 정신은 살리는 가운데,
금융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금융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금융인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정부포상을 받은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 전, 영상에서도 보셨습시다만
지금의 금융 환경은 과거와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국민의 재산형성 방식이 저축뿐만 아니라
주식, 펀드 등으로 다양화 되었으며,
기업들도 직접금융으로 많은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국제화도 빠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금융과 IT의 결합으로 이뤄진 핀테크 산업으로
언제 어디서든 휴대전화만 있으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급속한 변화에
금융개혁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보호 등
국민의 금융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출범한 서민 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 햇살론 등
다양한 서민 금융상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안요인들을 철저히 관리하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금융을 통해
신(新)성장동력 창출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인들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담보 없이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의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클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창업 초기 기업들에게 자본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데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금융개혁 법안들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금융 관련 규제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인 여러분,

금융발전의 주역은 바로 금융인 여러분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소비자 보호와 금융 보안에도 진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은 '자본주의 경제의 심장'입니다.

금융이 국민 행복과 경제 활성화를 북돋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금융인, 우리 모두의 역량을 모아 나갑시다.

다시 한 번, '금융의 날'을 축하드리며,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